

관람석 안내부터 통역까지... 흥행 숨은주역 자원봉사자

결승전에만 하루 8만여명이 몰리는 F1 코리아 그랑프리 '흥행 돌풍'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행사를 돕는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환승주차장과 영암 서킷 출입구, 관중석 등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서 길잡이 역할을 하고, 행사 진행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은 올 가을 열리는 'F1 코리아 그랑프리(10월 12일~14일)'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기도 하다.

◇F1 흥행의 버팀목' 자원봉사=F1 조직위는 최근 올 가을 대회에서 활동하게 될 자원봉사 최종합격자 629명을 선발했다.

지난 4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자원봉사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1851명이 신청해 평균경쟁률 3대1을 기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3회 대회를 앞두고 F1에 대한 국내 관심이 늘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국제행사경험, 자원봉사 실적, 외국어 능력 등을 고려한 서류평가를 통해 1069명을 우선 선발했으며 이후 3차례의 대면·전화 면접 등 까다로운 선발 과정을 거쳐 최종 629명을 확정했다.

선발된 분야는 입·퇴장 관리 98명, 입장권 확인 169명, 관람석 안내 120명, 일반안내 88명, 사무지원 11명, 공공부스 4명, 영어통역 139명 등 총 7개 분야다.

합격자 중 최고령자는 86세의 박정화(목포시 상동)씨로 2010년, 2011년 F1대회 참가에 이어, 올해에도 합격해 3년 연속 자원봉사로 참여하게 됐다. 또

끝기도 했다. 호남대 영어영문학과 김강(48) 교수와 학부생 7명이 자원봉사에 합격, 영어권 관람객들의 통역을 맡게 됐다. 김 교수는 미국에서 열렸던 국제연속제, 세계연속페스티벌 등의 국제 행사에서도 자원봉사를 했던 경험을 살려 학생들에게 국제행사를 보여주기 위해 사제간 자원봉사에 나섰다.

김 교수는 "단순히 통역 봉사뿐 아니라 학생들과 국제 행사를 함께 경험하며, 학생들이 영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F1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우리 지역 행사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행사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끝이 좋으면 다 좋아"라는 셰익스피어의 희곡처럼 F1은 성공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외국인·지역민도 한마음=F1 대회에는 이 지역 체류 해외 유학생과 다문화 이주여성과 지역민들의 도움도 이어지고 있다. 첫 F1 자원봉사에 나선 전남대 대학원 회계학과에 재학 중인 몽골인 간בל드 솔통(28)씨는 한국에서 5년간 거주하며 한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한다. 그녀는 "지난 2010년 친구들과 F1 대회를 관람했는데 너무 재미있었다"면서 "F1을 좀 더 가깝게 느끼고 싶어 자원봉사를 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열린 F1 대회에서도 필리핀 출신 마리벨안 신씨 등 이주여성 14명이 외국인들을 위해 통역서비스에 참여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희진(여·29)씨도 F1의 매력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게 됐다. 박씨는 "서울에서 F1 자원봉사에 참여하기가 조금 힘들겠지만 세계적인 축제를 함께하고 싶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F1 성공개최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도 높다. 최근 F1 조직위와 이 지역 22개 시·군이 F1 성공 개최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난 20일 영암 서킷에서 시·군 담당과장과 실무자 등 65명이 참석해 'F1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F1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대외 홍보와 입장권 판매전략 등과 관련해 22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협의했다. 일선 시·군에서는 대회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대형 버스 등을 적극 지원하고, 각 시·군 홈페이지나 소식지 등에 F1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또 숙박과 식품점접합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행정지도도를 강화키로 했다. 오는 10월 '남도 방문의 달'과 연계해 전국 각 지역에 흩어져 사는 전남 출신 향우를 F1에 초대하는 '향우 고향 방문 초청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한편 이번 F1 대회 자원봉사자 참여자에게는 실적 확인서, 근무복과 모자, 소정의 활동비, 숙박 및 식사 버스를 제공하며 향후 국제행사에 우선 참여할 기회도 제공한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지난해 전남 영암군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린 2011 포뮬러 원(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 결승경기 시작에 앞서 식전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해 대회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안내를 받아 환승주차장에서 줄을 서고 있는 관람객들의 모습.

입학문의 ▶ 062-605-1114

www.kwangshin.ac.kr

2012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2013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교설립 58주년
(1954~2012)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과	모집인원	
		수시 1차	수시 2차
인문	신학과	20	10
	국제한국어교원학과	2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10	6
	유아교육과	9	7
예능	음악학과 (피아노, 성악, 현악, 관·타악, 지휘,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6	4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20	-
총계		67	28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전형일정

수시 1차모집

· 원서접수: 2012. 8. 20(월) ~ 9. 11(화)
· 전형일: 2012. 9. 20(목)

수시 2차모집

· 원서접수: 2012. 11. 12(월) ~ 16(금)
· 전형일: 2012. 11. 29(목)

특별전형

· 전학과: 지역인재양성 전형
· 신학과: 교역자, 목회자사모, 교회봉사자, 교역자자녀, 국가(독립)유공자(손)자녀전형
· 유아교육과: 가정주부 전형

장학제도

매학기 약 30%이상의 학생들에게 각종 장학혜택이 주어지며, 기타 가족장학금, 보존장학금, 독지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만학도장학금 등 지급

기독교명문대학!
진리로 미래를 여는 지성인의 요람!



QR코드를 스캔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일반전형】

■ 주요일정

① 원서접수: 2012. 8. 6(월) - 8. 20(월)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전형일

대학원명	학과	필기 및 면접고사
일반대학원	신학연구과(M.A.T.)	2012. 8. 24(금) 오후 2:00
	장애유아통합교육학과(M.Ed.)	2012. 8. 24(금) 오후 2:00
신학대학원	신학과(M.Div.)	2012. 8. 24(금) 오후 2:00
교육대학원	교육학과(M.Ed.)	2012. 8. 24(금) 오후 2:00

③ 합격자발표: 2012. 8. 28(화) 오후 2:00

④ 등록기간: 2012. 8. 29(수) - 31(금)

▼대학원 과정별 모집정원 현황

대학원	과정	학과	전공	모집정원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연구과(M.A.T.)	-	0
		장애유아통합교육학과(M.Ed.)	-	0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0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M.Ed.)	유아특수, 초등특수, 상담	0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리길 소로 36